

哲學片感(六)

- 哲學을 왜 非難하는가 -

朴相鉉

×

셋재로 사람들은 哲學을 奧妙한 學問이니 或은 難解의 學問이니 하여 哲學을 멀리하는 態度를 取한다. 換言하면 哲學을 特殊한 哲學者에게만 研究될 學問이라고 하여 自己의 學的 能力을 無視하고 袖手傍觀의 態度를 取하려 한다. 이러한 態度도 哲學을 非難하는 心理에서 나오기 容易한 것이다.

우리가 如何한 學問일지라도 그 學問을 研磨하여 咀□하고 解得하기에는 精神的 努力은 勿論이어나와 身體的 努力도 莫大한 것이다. 昔今에 有名한 學者의 生□를 聽觀하면 可히 學問 學得이 얼마나 苦心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上古 希□의 『소크라테스』가 그 當時 知識을 商品化하는 □辯學者들의 理論을 批斥하고 知識의 標準을 爲하여 努力하다가 終末에는 어긋한 毒杯를 들게 된 것이라든가 伊太利의 科學者 『브라헤』가 自己의 學說을 確立하려다가 □死를 當한 것이라든가 數學者 『켈릴리오』가 그 當時 萬人의 反對와 輕蔑과 嘲笑를 물니치고 自己의 學說을 確立하고자 □發的으로 努力한 事實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그것은 學問 研究가 그 만큼 苦心慘□的이란 것을 如實히 말해주는 것이다.

그들은 學問을 爲하여 사랏고 또한 學問을 爲하여 自己 生命을 提供한 것이다.

何等の 努力업시 一□千金의 格으로 到底히 一學問의 體系이나마 知得 할 수 업는 것이다. 요지음 富裕한 家庭의 子女들은 名譽를 爲하여 地位를 爲하여 或은 趣味를 爲하여 學校 生活을 하는 사람들이 업지 안아 있다. 참으로 寒心한 일이다. 高貴한 教育을 名譽와 地位와 趣味의 奴隸로 삼는 그들은 人生의 價値를 文化의 價値를 教育의 意義를 차지려야 차줄 수 업슬 것이다. 娛樂的으로 教育을 바든 그러한 學徒에겐 應當 學問體得이란 無限의 難事일

것이다.